

과기정통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충북(청주 오창), 경남(창원) 선정

- 오창 과학산단, 창원 디지털 혁신지구(밸리)를 중심으로 지역 디지털 생태계 육성
- 지역주도 추진을 원칙으로 지역 당 3년간 초기조성비 63억원(국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충북 오창 과학산업단지, 경남 창원 디지털 혁신밸리 2개 입지를 대상으로, '24년부터 3년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23년에는 부산 센텀시티 및 대구 수성알파시티 선정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핵심사업 중 하나로, 디지털 생태계로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 내 최적입지를 선정하여 디지털 기업과 인재 성장거점의 초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3년간 63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특화 성장전략 수립 및 거점의 브랜드화(예: 대구 수성알파시티), ▲디지털 인프라의 집약적 구축을 통한 앵커시설 기능강화, ▲거점 내 미래 앵커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밀착형 과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총 9개 광역지자체(경쟁률 4.5:1)가 참여한 올해 공모의 경우 청년인재가 선호하는 정주여건, 디지털 전환 수요산업의 집적도 및 성장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충북 오창 과학산업단지*, 경남 창원 디지털 혁신밸리**가 디지털 인재와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최적 입지로 선정되었다.

* (오창) 오창 신도시로 청년인구(평균 34.4세) 유입, 2차전자·반도체(하이닉스 등) 산업 성장

** (창원) 창원특례시(인구 100만) 상업중심지에 위치, 창원국가산단(자동차조선원자력방산) 도보 거리

< 충북도 사업추진계획 >

충북도는 권역 내 연구개발 핵심거점인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24~'26)을 추진하여, AI반도체 등 IT제조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유치·집적과 지역 특화 첨단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에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기술을 공급하는 디지털 기업 유치·육성에 착수한다.

수도권의 주요 첨단산업 거점(판교테크노밸리 등)과 1시간 거리로 인접해 있으며 비교적 임대료가 싸다는 강점을 살려 디지털 기업의 이전·유치를 위한 입주 설명회, 기업 입주공간 제공 등을 이번 사업에서 추진하며, 거점 내 SW·AI 기업(공급자)과 인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계(수요자) 간 디지털 전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매칭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충북도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27년 준공 예정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여 AI반도체 부품·소재 등 첨단 IT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의 SW·AI 기업 생태계와 연계를 강화하여 첨단 제조업과 SW·AI의 융합을 선도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경남도 사업추진계획 >

경남도는 동 시범사업('24~'26)을 마중물로 창원 국가산단 인근 “경남 디지털 혁신밸리”에 디지털 기업과 인재를 고밀도로 집적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기술을 공급하는 거점으로 조성하여, 올해로 지정 50주년을 맞은 창원 국가산단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우선 거점 내에 경남 디지털 혁신허브(산학융합원 캠퍼스관 등)를 메인 앵커시설로 활용·구축하고, 임차료 100원 공유오피스, 제조현장 문제해결형 디지털 혁신 과제 등을 통해 수도권 디지털 기업(R&D센터, 지사 등) 유치와 지역 풀뿌리 디지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향후에는 지상 25층 규모의 대형 앵커시설인 경남 디지털 혁신타운을 건립하여 거점 내 디지털 생태계의 랜드마크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경남도는 경남 디지털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권역 내 디지털 전환 수요처(진주·사천-항공·우주, 김해-의료기기·헬스케어)를 연결하고, 지난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센텀시티까지 연결고리를 확장함으로써 동남권 디지털 거대 경제권을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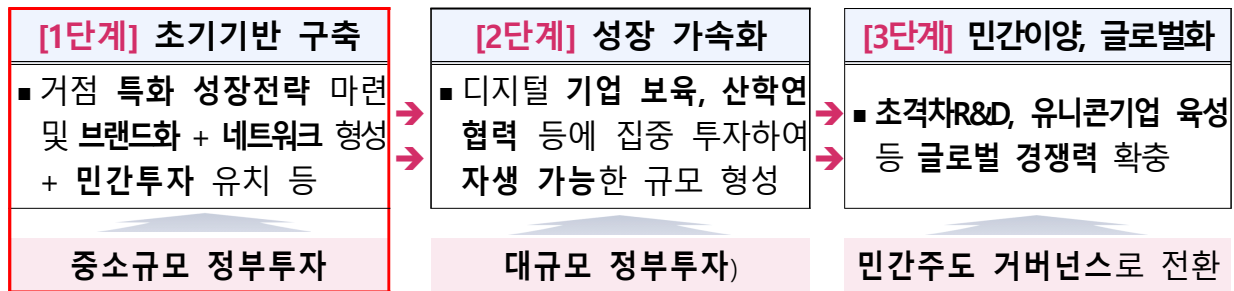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작년부터 추진된 시범사업을 통해 권역별 디지털 신산업의 최적입지를 발굴·선정하고 거점별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지역 내 디지털 신산업 거점의 초기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의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도 적극 지원하여 지역에 디지털 생태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책임자	과 장	장두원 (044-202-6330)
		담당자	사무관	정재현 (044-202-6333)



□ 사업 개요

- (목적) 디지털 신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내 최적입지 대상으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초기기반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24년 예산(국비)/기간) 84억원(4개 지역 × 21억원)/ 지역당 3년 지원
 ※ ('23년 선정)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4년 선정) 충북 오창 과학산업단지, 경남 창원 디지털 혁신밸리

□ 주요 지원 내용

- ① (브랜드화 및 특화 성장전략) 지방 청년인재, 기업 등이 취업·입주를 선택하게 할 만큼의 매력적인 고유 브랜드 확립
 - 플래그십 행사(예: 센텀 디지털 위크), 입주 기업 멤버십 프로그램, 온라인 채널 개최·운영 등
 - 거점별 실태조사 수행 및 단계별 성장계획 수립 지원
 - 기업 협의체 운영 등 거점 내 인적 네트워크 형성 촉진
- ② (앵커시설 기능강화) 거점 내 앵커시설(필요시 SW진흥시설 지정)에 디지털 인프라를 집약적으로 구축하고 상호 연계 강화
 - 지역 내 분산된 테스트베드, 시설장비, 업무공간 등 재배치·구축
 - 연구시설·장비 등의 공동 활용 지원 및 협업 공간 조성 지원
- ③ (디지털 혁신주체 성장지원) 거점 내 미래 앵커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과제 지원 및 기업밀착형 지원 체계 구축·운영

□ 개요

- ◇ (위치)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오송읍 일원
- ◇ (면적/대상지 유형) 8,644천㎡(약 261만평) / 일반산업단지(과학산업단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강소연구개발특구 등으로 지정

- (추진방향)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연구기반* 중심으로 클라우드·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산업 집중 육성

* 방사광가속기(27년 준공 예정),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충북대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등

- (사업기간) 2024. 5. ~ 2026. 12. 31.

- ('24년 사업비) 90억원 : 국비 63억원, 지방비 27억원(전액 현금)

□ 세부 추진과제

- ① (브랜드화 및 특화 성장전략) 방사광가속기를 핵심 인프라로 AI반도체, 디지털바이오 등 첨단IT제조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② (앵커시설 기능강화) 오창과학산단 내 혁신지원센터, 과학지식산업센터 중심으로 AI반도체 등 IT제조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유치, 수도권 디지털 기업 유치·입주 지원

< 주요 앵커시설 >



③ (디지털 혁신주체 성장지원) CAB 플랫폼* 구축으로 온·오프라인 디지털 공급 기업-(제조)수요기업 매칭 지원, 수준별 앵커기업 육성·인증제도 실시, 창업기업 지원

* CAB 플랫폼 : Cloud-AI-Bigdata-Blockchain 분야 대학·연구소·디지털 공급·수요 기업 간 디지털 인프라, 인력, 협력프로그램 등 디지털 자원 공유 플랫폼

충북 디지털 혁신거점 앵커시설(오창혁신지원센터) 현황



위 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2-2
규 모	지상 5층
면 적	3,830.3m ² (산업단지 총면적 1,084만m ²)
연면적	4,000m ² ※ 용적률 1,000%까지 허용
사업비	120억원 (국비 40억원, 도비 80억원)
기 간	'21년 ~ '24년
용 도	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 개요

- ◇ (위치)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인접지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 ◇ (면적/대상지 유형) 722천㎡(약 21만평) / 산학융합지구
 -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교육발전특구 등으로 지정

- (추진방향)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디지털 전환 수요처로 하는 디지털 기술 공급(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생태계 조성
 - * 스마트조선, 첨단항공기, 지능형의료, 지능형 로봇 등
- (사업기간) 2024. 5. ~ 2026. 12. 31.
- ('24년 사업비) 163억원 : 국비 63억원, 지방비 100억원(전액 현금)

□ 세부 추진과제

- ① (브랜드화 및 특화 성장전략) 전국 최대 제조산업단지를 수요처로 제공하여 디지털 전환 공급기업 유치 및 육성 추진, 제조 디지털 전환에 특화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② (앵커시설 기능강화) 디지털 혁신허브(산학융합원)-디지털 혁신 브릿지(창원 아트라운시티) 등을 앵커시설로 활용·구축하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공급 기업 유치·집적
- ③ (디지털 혁신주체 성장지원) 임차료 100원 공유오피스, 현장문제 해결형 '제조혁신 챌린지' 운영, 원스톱 기업 지원으로 예비 앵커기업 육성 등 추진

< 경남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계획 개념도 >

